

[UBS 수능특강 운문문학] 목차

고전 시가			현대시		
목차	작품	페이지	목차	작품	페이지
01	안도환 - 만연사	2	01	이용악 - 오랑캐꽃	166
02	정인지 외 - 용비어천가	43	02	백석 -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169
03	작자미상 - 갑민가	85	03	김소월 - 님의 노래	172
04	김상용 - 훈계자손가	95	04	오장환 - 성탄제	174
05	이휘일 -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98	05	한용운 - 수(繡)의 비밀	177
06	정약용 - 보리타작	102	06	정지용 - 춘설(春雪)	179
07	최치원 - 제가야산독서당	104	07	박남수 - 종소리	181
08	작자미상 - 동동	106	08	서정주 - 무등을 보며	183
09	작자미상 - 집장가	110	09	이육사 - 꽃	185
10	작자미상 - 형장가	113	10	김광규 - 상행	187
11	작자미상 - 정석가	116	11	박봉우 - 나비와 철조망	190
12	양태사 - 야청도의성	119	12	신동엽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92
13	이조년 - 이화에 월백하고 ~	122	13	고재종 - 들길에서 마을로	196
14	원천석 - 흥망이 유수하니 ~	124	14	황동규 - 풍장(風葬) 1	198
15	길재 - 오백년 도읍지를 ~	126	15	박목월 - 윤사월	201
16	정도전 - 선인교 나린 물이 ~	128	16	신석정 - 꽃덤불	203
17	신희문 - 시니 흐르는 골에 ~	130	17	나희덕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205
18	홍량 - 뿔버들 같히 것거 ~	132	18	송수권 - 등꽃 아래서	207
19	작자미상 - 님이 오마하거늘 ~	134	19	신경림 -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209
20	작자미상 - 나모도 바히 돌도 ~	136	20	구상 -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211
21	작자미상 - 가마귀 싸호는 골에 ~	138	21	김현승 - 눈물	215
22	작자미상 - 가마귀 검다 후고 ~	140	22	고정희 -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 백을 남긴다	217
23	박효관 -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	142	23	기형도 - 홀린 사람	220
24	작자미상 - 가마귀 가마귀를	144	24	문정희 - 한계령을 위한 연가	223
25	작자미상 - 백사장 홍료변에 ~	146	25	김용택 - 섬진강 1	226
26	작자미상 - 정선 아리랑	148	26	정호승 -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229
27	작자미상 - 노처녀가	150	27	김선우 - 깨끗한 식사	231
28	작자미상 - 논매기 노래	154	28	김승희 - 배꼽을 위한 연가 5	233
29	어느 행상인의 아내 - 정읍사	157	29	황인숙 -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236
30	작자미상 - 어이 못 오던다 ~	159	30	유하 - 싸비용 영화 사회학	239
31	이규보 - 꽃샘바람	161			
32	작자미상 - 구지가	164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 갑민가

작품 원문

갑민가(甲民歌)- 작자미상

- 01 어저어저 저귀 가는 저 스름은 대화체 형식
아아(감탄사) 도망가는 사람, 갑민, 정자 / 화자는 생원
- 02 네 형식(行色) 보아하니 갑민의 모습만 보고도 생원이 '군사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갑민과 같은 상황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정자의 상황과 신변 양시 군수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길으로 드러나는 차림과 태도
군사가 군역을 피해 달아남
- 03 노상(腰上)으로 불죽시면
- 벼적습이 깃문 남고 벼로 지은 여름에 얽는 훌저고리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짚게 만든 훌바지
- 04 허리 아리 구버보니 헨 줌방이 *노닥노닥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길거나 덧붙인 모양
- 05 곱장할미 압희 가고 하리가 곱은 할머니
「」: 대구법을 통해 갑민의 누추한 형색과 갑민의 모습을 묘사함
- ↓ 대구. 묘사 전티발이 *뒤에 간드 다리를 저는 사람
- 06 십니(十里) 길을 하루 가니 하루에 십리 정도 이동하는 갑민의 가족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원의 추측이 드러남
- ↓ 설의 몇니 가서 업쳐디리 얼마 못가서 죽어앉을 것이다
- 07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름
- 트도트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다른 지역, 다른 고을
- 08 천(賤)이 되기 상스여든(예사거든)
- ↓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 본토군정(本土軍丁) 슬타 호고 본토의 고향 군적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
- 09 즈늬 쏘한 도망(逃亡) 호면 군역 의무를 피해 도망가는 '당신'의 처지
- 일국일토(一國一土)한 인심(人心)에 어딜 가든 같은 상황임
- 10 근본 숨겨 살려한들 「」: 양반도 다른 근으로 가면 살기 어려운데, 하물며 갑민은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원의 생각이 드러남
- ↓ 설의 어디 간들 면홀손가
- 11 츄라리 네 스던 곳의 아모케나 쑤희 박여 정착해서
- 12 칠팔월의 취습(採蓼) 호고
- ↓ 대구. 대유 구십월(九十月)의 돈피(狹皮) *잡아 담비 모피
- 13 공척신역(公債身役) 값은 후에 국가에 내는 세금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그 나머지 두었다가

현대어풀이

갑민가(甲民歌)- 작자미상

- 01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 02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 군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너로구나
- 03 허리 위로 본다면
- 깃만 남은 벼적삼을 입고 있고
- 04 허리 아래로 굽어보면 헨 바지가 너덜너덜
- 05 허리곱은 노모는 앞에 가고
- 절름발이 사람은 뒤에 간다
- 06 십리길을 하루에 가니
- 몇 리 못 가서 엎어지리라
- 07 자기 고을의 양반이
- 다른 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 08 천하게 되기 쉬운 일인데
- 본래 살던 고을의 군정을 싫다하고
- 09 자네 또한 도망가면
- 한 나라 한 땅의 한 인심에
- 10 근본을 숨겨 산다고 한들
- 어디 간들 천함을 면할 수 있겠는가 (천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11 차라리 자네가 살던 곳에서 아무렇게나 뿌리 박아
- 12 칠팔월엔 인삼 캐고
- 구십월에는 돈피(담비 가죽)를 잡아
- 13 군역과 부역을 값은 후에
- 그 나머지(남은 삼과 돈피)를 남겨두었다가

↳ 그곳이 북청 땅이다

108 북청(北靑) 싸이 괴아닌가
 ↓ 설의 「」: 북청에 가깝지 않은 경유가 제시되어 있음
거처호부(居處好否) 다 떨치고
 머물곳에 대한 좋고 싫음

109 모든 가속 안보하고
 한 집안에 딸린 귀성원
 신역(身役)업슨 군스(軍士)되세
 → 갑민의 소망 [90~110] 본사
 -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생원의 말에 대한 갑민의 대답 ④

110 넉곳 신역(身役) 이러 흐면
 ↓ 설의 가정 북청부사와 같이 선정을 베푸는 관리가 갑산에 있었다면, 친족들과 이별 이친기묘(離親棄墓) 흐 올소나 - 북청 지방으로 떠나게 된 이유
 하인 조상의 묘는 버림 자신이 고향을 떠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임

111 비넉 이다 비넉 이다 하나 님게 비넉 이다
 ↓ 설의 가정 소원을 비는 대상. 북청부사와 같이 선정을 베푸는 관리가 갑산에도 나타나게를 바램

112 충군이민(忠君愛民) 북청(北靑)원님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함
 우리 고을 빌이 시면*
 '빌려주시면'으로 추정됨

113 군녕도탄(軍丁塗炭) 그려 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114 그 되 또한 명연(明年) 잇 씩
 처즈동싱(妻子同生) 거 느 리고

115 이 령노(嶺路)로 잡아 들 직
 고개를 넘어 오르내리도록 나 있는 길 「」: 갑민은 미래에 생원도 갑산을 떠나려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함

116 넉 심똥(心中)의 잇날 말슴
 횡설수설(橫說豎說) 흐 려 흐 면
 말을 이리저리 지껄임

117 내일(來日) 이 씩 다 지 나 도
 하루가 흘러도
 반(半) 나 마 모 자 라 리

118 일모(日暮) 흐 충 충(忽忽)
 해가 저물어 바빠
갈 길 머 니 하 직 호 고 가 노 미 라

[111~118] 결사
 - 갑민의 말
 갑민의 소원과 인사
 - 북청부사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기를 기대함

108 북청 땅이 거기가 아닌가
 거처가 좋고 싫고를 다 떨치고

109 모든 가족을 편안히 보전하고
 신역이 없는 군사가 되세

110 내가 사는 곳 신역이 이러하면(북청과 같다면)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111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112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북청원님
 우리 고을에 빌려주시면

113 군사행정의 비참함을 그려다
 임금님께 올리리라

114 그대 또한 내년 이 때에
 아내와 형제자매를 거느리고

115 이 영로(고개)로 접어들 때
 그 때 나의 말을 깨우치리라

116 내 마음 속 있는 말들을
 횡설수설 다 말하려면

117 내일 지금 이 시간이 다 지나가도
 반도 모자라리

118 해가 저물어 바빠
 갈 길이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

✓ 지문 분석의 끝

① 작가 : 작자미상

중요도	기출연도	작가	작품
★	17. 06	작자 미상	동동
♣	06. 03	작자 미상	동동

② 갈래 : 고려가요

(월령체 - 매달 세시 풍속과 화자의 정서를 같이 표현)

③ 화자 : 표면에 드러나 있음

④ 시적 상황 :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어 중문을 나서고 때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임이 오는지 바라보고 있다.

⑤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⑥ 주제 :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임에 대한 연모의 정

⑦ 특징 :

-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 형성
- 화자의 처지와 자연물을 대비하여 제시
- 분연체 형식으로 서사인 1연과 본사인 12연으로 구성
- 후렴구를 사용하여 형태적 안정감 표현
-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 제시
- 자연물을 이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 표현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 강조
-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보여 주고, 대상에 대한 그리움 표현
-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되며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제시
- 3음보, 후렴구, 분연체의 고려 가요의 일반적 형식을 보임
- 모든 연이 일관된 정서를 읊은 것이 아닌 각 연별로 독자적인 정서를 표현

⑧ 핵심 감상 포인트!

◦ 비유적 표현

	비유한 사물	의미
① 님	2월 - 등불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
	3월 - 달래꽃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
② 님에 대한 사랑	5월 - 약(藥)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7월 - 백종(百種)	임과 함께 지내기를 소망
③ 화자 자신	6월 - 별헤 버린 빛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10월 - 저미연 바닷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12월 - 반(盤)에 저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 비유
④ 화자와 대비	1월 - 나릿물	시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돌아오지만, 님은 돌아오지 않아 화자 자신이 홀로 있다는 상황을 강조
	4월 - 곳고리새	피꼬리는 다시 돌아 왔지만 임은 화자를 찾지 않음을 강조

◦ 이해 및 감상

: <동동>은 각 연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시상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서사와 2, 3, 5월령은 임에 대한 순수한 송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의 임은 임금이거나 임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4월령은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 6, 7, 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민요풍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후렴구의 '동동'은 북소리를, '다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